

## 울산아기 백일해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올해부터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임산부, 배우자 대상



울산시는 올해부터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이 있는 감염된 사람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생후 2~4개월의 백일해 기초접종을 완

료하지 않은 아기가 감염될 경우 뇌 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후 첫 백일해 예방접종 전까지는 임신부가 접종을 통해 형성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어 영아를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임신 3기인 27주~36주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울산시도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27주~36주 임신부, 또는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1세 미만 영아의 주요 감염원이 가족인 만큼 영아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임신부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백일해 예방접종 간격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산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은 영아를 중증 백일해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2025년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수산물 1,02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4%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자

## 영양 재래종 고추종자 분양을 개시한다

영양고추연구소, 1월 12일~16일 재래종 고추 확산을 위한 종자 분양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전통의 맛을 있는 4품종의 영양 재래종 고추 종자를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고추 재배 농가뿐 아니라 재래종 고추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고추의 맛과 색깔 등 품질 특성을 중요시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재래종 고추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 7년간 재래종 고추 종자를 전국 6천 998 농가에 분양했다.

분양하는 재래종 고추 4품종은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된 '영고4호(수비초)', 순한맛으로 과피가 두껍고 색깔이 좋은 '영고5호(칠성초)', 매운맛이 강하고 수확시기가 빠른 '영고10호(유월초)', '영고11호(토종)'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사라져 가는 재래종 고추를 되살리기 위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되던 재래종 고추 유전자원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복원했으며, 복원된 재래종 고추는 영양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도록 선발된 토착

유전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분양 신청은 선착순으로 인터넷 접수(1,000명)와 방문 접수(200명)로 진행되며, 분양계약 준수(판매금지 등)를 조건으로 1인당 최대 200립(수비초·칠성초·유월초·토종 각 50립씩)의 종자를 무료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내 '2026년 영양고추연구소 재래종 고추 분양' 게시글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시 '네이버 ID'가 필요하며, 신청한 종자는 21일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장길수 소장은 “경북 영양 지역 재래종 고추는 우수한 맛과 품질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재래종 고추의 안정적인 재배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품종 개량, 재배기술 개발 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대설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을 완료했다.

한윤석 기자

## 시군 발주사업 계약심사 405억 아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사업 1조 3,349억 원 규모 1,088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4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공공사업(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앞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과다 산정된 사업비는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보완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사업 중 △종합공사 5억 원 이상(기타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 이상(일반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 사업이다.

경남도 회계과는 지난해 총 1,088건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설계, 부적정 자재단가 결정 및 노무비 품셈 오류

적용 등을 바로잡았다.

절감액은 공사 366억 원(533건), 용역 30억 원(301건), 물품 9억 원(254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절감률은 2~4% 수준이며, 창녕(43.6억 원), 함천(36억 원), 함양(35억 원), 통영(32억 원), 양산(32억 원)은 요청사업 기준 30억 원 이상의 절감 성과를 보였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OO시 습지정비사업에서 탐방로와 관리용 도로 전체를 데크로 설치하려던 계획을 조정해, 관리용 도로로는 현장 여건상 경제적인 아자 매트 포장으로 대체하고 탐방로에만 데크를 설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9억 원을 절감했다. △OO시 기념공원 광장 조성공사에서 는 화강석 판재가 설계 착오로 사급·관급자재에 중복 계상되고, 단

가도 필요 이상 높은 물품이 선정된 것을 바로잡아 3억 원을 절감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품질 항목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의 현실화, 누락·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공사 9건, 용역 5건은 사업비를 증액했다. 또 심사 처리 기간을 4일로 단축해 시군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지난해 시군 민간자본보조사업 31건의 원가심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10억 4천만 원을 추가 절감했다. 송해경 과장은 “앞으로도 도민 세금을 꼼꼼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 부산-미국 앵커리지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항만·물류, 관광, 문화 등...북미 북극권 지역과 첫 협력 관계 구축

향후 미국 북부 지역으로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지시각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청에서 알래스카주 최대 항만도시 앵커리지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앵커리지시 방문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북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인 알래스카와의 실질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수잔 라프랑스(Suzanne LaFrance) 앵커리지시장의 참석해 직접 협정서에 서명했다.

박 시장과 수잔 라프랑스 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양 도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관광, 문화, 에너지자원, 인적교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정은 시가 북미 북극권 지역과 맺은 첫 번째 우호협력 관

계로, 향후 미국 북부 지역으로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앵커리지시는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항공·해상 물류의 요충지로, 이번 협정은 부산항과 '돈 영 알래스카항(구 앵커리지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같은 날 협정 체결식 이후 오후 3시, 시 대표단은 알래스카 주정부 앵커리지 사무소를 방문해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에너지·천연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시와 알래스카주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북극 항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양측의 정책적 협력과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국 앵커리지시는 북미의 관문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이번 우호협력 체결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의례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교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 연초 라텍스 전기장판 화재,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

전기장판·라텍스 매트리스 병용 사용 시 과열로 화재 위험 증가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옥)는 최근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함께 전기장판 관련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최근 3년간 난방 제품으로 인한 대구 화재 발생 건수는 103건으로 16건은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매트리스 등 열 배출이 어려운 침구류를 함께 사용하던 중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

생한 사례가 2026년 1월 1일과 2일 연속으로 2건 발생했다.

해당 화재는 장시간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열이 축적돼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전기장판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품 결함 ▲온도조절장치 고장 ▲전선 손상 ▲장시간 연속 사용 ▲라텍스 매트리스·두꺼운 이불 등 열 차단 소재와의 병용 사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해 화재 위험이 급

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KC 인증을 받은 난방용품 제품 사용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매트리스·두꺼운 침구류 등 열 차단 소재 사용 금지 ▲장시간 연속 사용 자제, 사용 후 전원 차단 및 플러그 분리 ▲전선·열선 꺾임 및 손상 여부 수시 확인 ▲전기히터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충분한 공간 확보 ▲동과 방지 전기

열선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 병용 사용 금지 ▲동과 방지 전기 열선 내용 연수 확인 및 정기적 교체 ▲온풍기,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금지 등이다.

엄준옥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전기장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난방용품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 결혼1번지 달서구 ‘생애이음’ 결혼장려사업 본격추진

청년의 만남에서 결혼·정착까지, 사랑과 희망을 잇는 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초저출생 시대 인구위기 극복과 청년 결혼을 응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생애이음' 결혼친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한민국 결혼1번지 달서구'는 2016년부터 비혼·만혼 확산으로 변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과 결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10년째 체계적인 결혼장려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만남 기회와 공감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올해 달서구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이색적이고 다양한 만남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결혼 공감 토크, 셀프웨딩 아카데미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달서구는 결혼 인식 개선을 비롯해 ▲만남 기회 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 ▲민·

관 협력 강화 등 결혼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생애이음' 결혼장려사업은 만남→결혼→정착→양육→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의 흐름을 지역사회가 함께 잇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결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25년 행정수요조사에서 주민의 91.1%가 달서구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밝히며 청년 정주율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결혼친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윤석 기자

## 울주 577억 투입 2026년 군민 체감형 농정시책 추진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농업분야 예산 577억 원을 투입해 군민 체감형 농정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울주군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4월로 단축해 육성 12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140억원, 농업 기반시설확충 160억원을 확보해 분야별 주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새로운 농정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2학년 2천300명을 대상으로 국내산 과일을 주 1~2회, 연간 30회 제공하는 어린

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월 최대 4만원)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울주군민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인양, 삼남·삼동, 웅촌, 상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울주군과 지역농협, 병원이 협업해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도 지원 인원을 400명에서 578명으로 확대한다.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며, 2년 주기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상담을 지원한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인공수분·병해충 방제 및 약제를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방제면적을 2천500ha까지 확대해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인다. 뒷밭상자 보급사업은 기존 380세트에서 올해는 500세트로 확대해 농업체원 기회를 확대한다.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463-1번지 일원에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울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한다. 울주군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학교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해 지역사회와 농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호근 기자